

# 韓國出版文化的 特性

——특히 李朝時代를 中心으로——

李 春 熙

성대 도서관학과 교수

편집자주 : 본고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될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 全體會議Ⅱ(출판과 출판물—동서 출판전통의 비교)에서 發表될 論文의 要約을 미리 掲載하는 것임을 밝혀 준다. 90.10

(1) 한국의 圖書는 筆寫本과 印刷本으로 大別할 수 있고, 印刷本은 다시 影版印刷本과 活字印刷本으로 나눌 수 있으며, 活字印刷은 이미 13世紀 初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活字印刷은 (例外도 다소 있지만) 대체로 法典, 儀禮, 公文書 등 國家에서 必要로 하는 圖書들에 限하여 實施되어 왔다.

(2) 14世紀以前의 高麗時代에는 주로 本板印刷에 依한 高麗大藏經 등 佛書의 刊行이 盛行되었고, 15世紀 以後 即 李朝時代에 들어와서는 儒敎中心의 圖書들이 한국도서 의 大宗을 이루었다.

(3) 한국의 圖書를 그 刊行者로 나누어 보면 大體로 官版本과 私版本이 있으며, 官片本에는 中央官署와 地方官署에서 刊行된 것이 있다. 한편 私版本에는 書院版, 寺刹版, 私家版, 坊刻版 등이 있다.

(4) 한국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圖書의 生産이 企業化하지 못하였다. 판매의 目的으로 刊行된 이른바 坊刻本도 19世紀에 와서야 비로소 流行되기 시작하였다.

(5) 이러한 現象은 圖書의 生産을 크게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活字印刷術이 發明이 西洋보다도 약 200年이나 앞섰으면서도, 이를 크게 開發시키지 못한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勿論 보다 根本의 原因은 오랜 東洋社會의 침체된 社會·經濟構造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6) 李朝時代의 圖書出版을 便宜上 壬辰倭亂을 中心으로 前後 2期로 나누고, 그 후를 다시 18世紀와 19世紀로 나누어 각각 그 특징을 살펴 보았다. 即 前期인 世宗治世는 한국文化史上 획기적인 發達을 한 때였고, 따라서 圖書도 매우 화려한 官版本들이 刊行되었다.

(7) 亂後인 17世紀는 物資의 결핍과 丙子胡亂등 잇단 政治·社會的 混亂으로 圖書의 生産도 매우 저조하였고, 技術上으로도 매우 치졸하였다.

(8) 18世紀는 英·正祖의 崇文政策과 實學思想의 影響등으로 말미암아 從來의 朱子學 一邊到의 思想에서 벗어난 圖書들이 刊行되기 시작 하였고,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도 李朝歷代를 通하여 가장 화려한 圖書를 生産한 때이기도 하다.

(9) 19世紀는 圖書가 商品化되기 시작하여 坊刻本이 流行되었고, 特히 後半期以後는 오랜 朝鮮의 鎖國政策을 放棄하여 門戶를 開放함으로써, 西洋의 文物制度가 수입되고 開化思想이 高조된 時期였다. 따라서 圖書出版에 있어서도 그 內容이나 形式이 急速度로 바뀌어 종래의 面目을 一新하기에 이르렀다.

(10) 書誌資料로는 16世紀末에 나온 魚叔權의 攷事撮要의 冊板目錄을 위시하여, 17世紀에는 金傑의 海東文獻總錄, 18世紀에는 徐有渠의 鏤板孝, 19世紀에는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éenne” 이 代表的인 것들이었다.